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사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구원 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47절

###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 복음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연구한 마이클 그레이엄과 짐 데이비스의 유익한 책, 탈기독교시대 교회(The Great Dechurching)를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교회 이탈(dechurching)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최근에 있었다. 여기에는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들어 있다. 나는 교회 이탈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Reconstructing Faith에 그레이엄과 데이비스 라이언 버지를 초대해서 인터뷰했다. 왜냐하면 교회 이탈은 지금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는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교회 이탈을 논하려면 거기에 수반된 다른 질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왜 교회에 가는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예만 집중하다 보면,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인 왜 교회에 가는지를 까맣게 잊곤 한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갈까? 거기에 뭐가 있기에 매 주 가는 걸까?



도자라면 신자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하나 같이 고상하고 또 강력한 신학적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자극적인 예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사실을 안다. 예배를 위해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이 미사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식료품점이나 쇼핑몰, 동네 고등학교의 풋볼 경기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그게 항상 하는 일이고 또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동네가 있다. 거기에서는 이웃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는 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전혀 불쾌감을 일으키는 질문이 아니다. 습관적 참석자(the regulars)는 교회에 가는 게 일상이고, 그건 사회적 결속과 가족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일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고려할 때,

이런 사람은 점점 고령층이 되어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젊은이는 많지 않다. 습관적 참석자가 누구인가?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날에 자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들의 일상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부모와 조부모들이다.

#### 책임자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을 "책임자"(the Responsibles)라고 부른다. 안내지나 집사, 주일학교 교사거나 유아반 봉사자, 성가대 또는 주차 봉사 등, 가지 않으면 당장 눈에 될 수밖에 없는 소그룹에 속한 이들이다. (3면으로 계속)



### 사물인터넷 시대의 목회

#### 우리의 신학과 목회를 미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식물에 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다. 화분을 선물 받으면 100퍼센트 죽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식물은 이미테이션만 존재한다. 꽃 꽃이도 싫어한다. 무엇인가가 내게로 와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싫다.

시대는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꽃이 정보를 내가 알아보고 관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방 소통의 시대가 종식됐다. 꽃을 파는 사람이 꽃에 대한 정보를 화분에 팟말 형태로 전달한다. 꽃 주인의 배려로 꽃의 이름과 물 주는 시기, 관리 방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대는 스마트한 시대이다. 화분에 팟말이 아닌 태그가 붙어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꽃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스마트링크 기능을 통해 스케줄화 시킬 수 있으며, 알람 기능을 통해 물주는 시기와 흙갈이 시기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시기를 놓쳐 식물을 말려 죽이

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광범위한 소통의 시대가 된다. 즉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다자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화분에 심어둔 센서가 꽃의 특성에 따라 흙의 상태를 파악해 주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물이 필요한지, 비료가 필요한지 즉각적인 안내를 해 준다. 가끔 교회에서 물을 이중으로 주어 꽃을 죽게 만드는 일 따위는 없어진다.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 화분 온도는 어떤지, 앞으로는 화분이 내게 말을 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다자간 소통은 화분이 스프링클러에게 대화하고, 전기스토브에게 말을 걸게 된다. 스프링클러는 화분의 요구에 따라 물을 정확하게 줄 것이고, 전기스토브는 온도를 조절해 줄 것이다. 나는 화분의 꽃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진 않을 것이다. (6면으로 계속)

#### 당신은 왜 교회에 가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답이 없는 것처럼(The Great Dechurching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왜 다니는가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다. 이 문제를 놓고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다양한 이유 앞에서 놀랄 것이다. 교회 지

#### 습관적 참석자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순전히 습관 때문이다. The Lamp에 기고한 글에서 매튜 왈더는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에 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박우진 목사



신앙도서 독후감 수상작 한미라 집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날짜: 토요일, 3/16 @ 2pm-4pm 1:30부터 와서 친교하세요.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Glory Church)  
■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문의: Tvnext.org@gmail.com 새라킴 사모

자녀들도 함께 오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자녀세대를 위해 선한영향력을 끼치는 학부모들의 서명운동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 TIME TO STAND!!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발행인 칼럼

나를 찾아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당신은 누구요?”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

관을 “기독교 세계관” class 교수들과 함께 다녀왔다. 물론 전시된 수많은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만 보고 왔다.

자기 정체성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는 많이 있다.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그를 알려면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고 의미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모임이나, 자기가 졸업한 학교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찾으려고도 한다.

참여와 초청의 예배, 그리고 음악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음악에 감동한다. 그래서 ‘어떤 음악으로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배를 준비하는 수뇌부가 거쳐야 하는 유격 훈련과도 같다.

마르틴 루터는 1544년 개신교 예배를 위해 최초로 지어진 교회의 봉헌 예배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참여’라는 단어는 그 본래 의미를 한없이 축소가능한 단어라는 것이다. 나는 강의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 내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놓치지 않는 학생들을 종종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시간에 참여는 하지만, 몸만 와서 앉아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은신처로 사용하는 사



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 도피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범행을 피해 은신의 방법이 더 세밀해지고 다양해진 듯하다. 개신교에서 알맞다고 정해 놓은 예배 순서와 형식에 맞춰 예배를 선포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축도가 지의 시간을 마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믿음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일한 말씀, 개인의 입맛에 맞는 음악, 눈을 즐겁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적당한 조명이면 좋은 예배였다고 말한다. 설교자의 신박한 성경해석으로 인해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삶과 일에 적용할 유용한 통찰력을 얻으면 은혜로운 설교였다고 고백한다.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될 때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해야 한다. 이 일은 너무도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은 물론 자기 자신도 깨어 있지 않으면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이 가장 중요해진 오늘, 사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고용한다.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는 자신의 전문 분야 안에서 일어나는 예외사항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슬픈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통제권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현상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성.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점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건 등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2024 제 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Hyo(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공모전 접수기간 2024.3.4(금)~3.30(토). 시상: 대상 \$500, 최우수상 \$300, 우수상 \$200, 헤이븐장학상 2명. 공모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공모주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미래의 모습은 뭘까요? 공모방법: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방법: 제출기간 2024. 3. 4(금) ~ 3. 30(토). 제출양식: 글짓기: 3 page (Letter Size, 12pt). 문의사항: 714-670-8004 / 714-833-2710.



###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1면에서 계속)

그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많은 책임 때문이다. Everybody Loves Raymond의 한 에피소드에서 레이 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모와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결국 그는 성당에 가기를 꺼렸던 과거를 반성하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성당에 열심히 참석하기로 다짐한다. 하지만 그가 성당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건 아버지가 성당을 열심히 다닌 게 신앙 때문이 아니라 현금 봉사와 현금 계수하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잡담을 좋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존경자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세 번째 이유는 가족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회적 해택 때문이다. 나 는 이들을 "존경자"(the respectables)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도덕적 본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교회는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곳,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이다. 크리스찬 스미스와 에이미 아담스식이 쓴 Handing Down the Faith(신앙 전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성공적으로 전달한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담고 있다. 그들의 인터뷰에는 '토대' '베이스' '기초'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존경자는 교회 출석이 자녀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끄는 도덕 기반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교회는 그들이 선행하고 도덕적이며 품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기들은 가지 않았으면서도 부모들이 굳이 십대 자녀를 교회 청소년 모임이나 교회 캠프에 보내는 이유이다. 자기네는 이미 교회가 제공하는 도덕적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추구자

교회에 가는 네 번째 이유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인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매주 미국 전역의 교회에는 영적으로 갈구하지만, 아직 신앙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한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그 가르침에 관심이 있다. 대부분은 다른 부류에 해당하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지만, 일부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 다니거나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 후 출석하기도 한다. 추구자(the reachers)는 규모가 가장 작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이 그들의 영적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나중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확신자

마지막 부류지만 의미가 있는, 굳건함과 결단력으로 특징지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 이들은 가장 명백하게 중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교회 출석자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서 역사한다. 확신자(the resolute)의 열정과 헌신을 강조한다고 해서 내가 처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



두 불신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따라서 오로지 성경적인 이유만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확신자는 교회를 성경적 렌즈로 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독실한 신자이다. 확신자는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 신약성경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또한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갈구한다. 그들은 또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불가능하다. 올바른 영성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교회 참석자의 대다수가 이 독실한 그룹에 속한다고 착각하

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교인을 구성하는 건 다양한 수준의 영적 성숙도를 지닌 다섯 가지 범주의 사람들 모두이다. 또한 습관적 참석자인 동시에 책임자일 수도 있다.

#### 교회 출석의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이 교회 출석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습관적 참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 그룹에서도 지속적인 쇠퇴를 예상할 수 있다. 교회 이탈이 계속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고립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요구 사항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와 활동까지 줄어들기에 서로를 연결하고 의무를 이행할 장소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존경자

사이에서도, 기독교의 도덕적 비전을 고수하다 보면 주류 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교회 출석이 초래하는 사회적 대가가 너무 높으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문화의 광기에 대응하여 신앙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도덕적 건전성의 원천으로 보며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성 혁명은 필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상자를 낳을 것이다. 추구자 중에서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신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환영하는가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지혜와 가이드를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 확신자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 그룹은 어

는 시점에 이르러서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들이 다음 세대에까지 자신들과 같은 확신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가이다. 확신자가 과연 기독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추구자를 더 많이 찾고 초대하려고 할까?

#### 교회 리더들에게 좋은 소식

이 모든 건 교회 출석과 관련한 하나의 시험적인 생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소개한 분류를 비판하거나 보강하려는 모든 의견을 환영한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당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처음 세 가지 범주와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도 긍정적인 면이 숨어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들이 확신자가 되도록 인도하라.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 시론

## 생명소리 아나운서(言語運士)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미국도 한국도 총선(總選), 대선(大選) 등 선거철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상원, 하원 등) 등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대부분 국가의 모든 선거의 양상은 나서는 사람은 권력과 통치를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선거권자들인 대중들도 통치자, 권력자를 위해 자기 표를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인류역사에서 다양한 제도가 있었지만 모두 통치자를 위한 방법들이었다. 민주주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개념보다는 출마자도 투표자도 모두 일인통치자의 자리를 의식한 참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치루는 선거라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늘상 나타나는 과열증세나 거짓과 시기와 모함 같은 모습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올해 11월에 치룰 미국의 대선이나 4월에 치룰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이 상대를 향한 간계와 무자비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한국의 정치판(政治版)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은 그나마 정치라는 도를 깨뜨린지 오래 되었고, 미국도 보수와 진보의 계략이 있을 뿐 민주정치가 가지는 도(道)가 무너진지는 오래 되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을까? 한국 교회, 범위를 좁혀서 이민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가져야할 근본인 신본주의(新本主義)는 무너지고, 결국은 물질만능의 인본주의의 그늘에 덮여버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신본주의의 교회운영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 '사람이 제비는 뿔이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성경은 교회의 통치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만일 제비(the lot)의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결정하고 배열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비뽑는 것같은 단순한 행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온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욱 성실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지도자를 잘 뽑으려면 '이 자리'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 자리'는 바로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직, 겸손, 진실, 긍휼, 겸양과 같은 단어 앞에 줄서는 자와 함께 한다. 요즘 언론에서는 '정치인의 워딩'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자로 나서려는 사람들의 연설 속의 워딩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들의 평소 워딩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성도 특히 목회자들의 언어도 그런 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이면(裏面)에 숨긴 부끄러운 삶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의 언어가 인격을 담은 언어, 결국 자기의 삶이 드러날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도의 언어는 두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지 않고, 삶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정치꾼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언어운사(言語運士)들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By Trevin Wax, TGC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버시(Prassede)

로마에 살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리아 델 마조레(Santa Maria del Maggiore) 성당은 로마의 4대 교회 중 하나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기독교가 50년 동안의 핍박에서 자유 하게 되자 비로소 교회는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AD 358년에 건축된 이 건물이다.

그런데 마리아 델 마조레 건물 동쪽의 골목 안으로 오래된 작은 교회가 있다. 아마도 거대한 마리아 델 마조레 교회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그 버시는 로마서 16장 12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 교회의 중요한 성

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전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버시, 즉 이태리어로 Prassede이다. 그녀에 대해 단 순하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로마에서 버시를 기억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라는 사실이다.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고,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에게까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이 전해졌을까 싶다. 고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녀의 안부를 전했다는 것은 그녀의 헌신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헌신이 고린도에 체류하던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기에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의 안부를 전한 것이다. 다른 이들도 본받고

록... 그런데 그녀를 기념하는 교회가 로마의 중심부에 있다. 오랜 세월을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교회의 이름이 프라세데(Prassede)로,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 여기서 백여 미터를 내려가면 유명한 길, Via Cavour가 있다. 초기 로마 시대 그 길은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길에서 줄리어스 시저가 어릴 때 뛰놀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로마의 중심으로 마리아 델 마조레 성당 주변으로 로마 시대 많은 교회가 세워졌었다고 한다. 물론 가정교회 스타일이었지만, pudens는 원로원 의원 푸덴스(AD1세기)를 의미하는데, 그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개종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의 두 딸, Pudenziana와

Prassede도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개종한 후에 로마에서 최초로 예배 장소를 세웠고, 그것을 Tituli라고 불렀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의 기본이 되었다. 즉, 자산의 보유자는 유언장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에 기부하도록 했고, 기부자의 이름을 딴 티툴리가 미래교회의 핵심이 되었다고 한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푸덴스는 현재의 교회에서 약 9m 아래에 거대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pudens가 순교자 물려받은 재산으로 수많은 성도를 숨겨주었고 도와주었다. 또한 그녀는 주교의 동의를 얻어 142-145년경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예배당을 세웠다. 그녀는 숨겨준 교우들이 발각되어 순교 당할 때는 용감하게 나서서 시신을 살라리라(Via Salaria)에 있는 프리스길라 카타콤베(Prisila catacombe)에 묻어주었다. 당시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후, 두 자매 Prassede와 Pudenzianas는 로마의 법을 어긴 이유로 순교를 당했고, 아버지와 함께 프리스길라 카타콤베에 묻히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순교하자 그 가족이 남긴 재산으로 Praxedis(Prassede)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491년에는 Praxedis라는 평판과 함께 주변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817년에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는 프리스길라 카타콤베에 묻힌 순교자들의 뼈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안치한 순교자들의 수가 2천여 구나 되었다.



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 교회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가져온 예수님을 결박했던 돌기둥을 보관하고 있다. 한 사람, 자매 버시가 복음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선한 사역이 바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그의 서신에 기록되었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지금

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회를 주님께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도 버시의 헌신을 배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싶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박우진 목사  
(평창동산교회)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가정에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딸이고, 막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녀석들이 종종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제목은 "아빠! 내꺼"입니다. 어느 날 막내가 앉아 있는 제 뒤로 와서 두 팔로 제 목을 감으면서 "아빠! 사랑해"라고 고백하며, 두 명의 누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꺼". 그리고 빨리 제 무릎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둘째가 달려와서 막내를 힘으로 밀치면서 "아니야! 아빠 내꺼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내는 그럼니다. "아니야! 아빠 내꺼야!".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첫째는 다가와서 가볍게 두 녀석을 제압하고, "아빠! 내꺼야!"라고 하면서 제 무릎 위에 앉습니다. 큰 누나가 앉자마자 싸우던 두 녀석은 힘을 합하여 큰 언니, 누나를 밀쳐내려 하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힘들기는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세 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아! 아빠는 너희의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싸우던 이 녀석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아빠는 누구 거예요?". "응, 너희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바로 아빠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러면 그때서야 서로 씨름하던 녀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담시킴을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해야 하는 직무와 회중을 위해 '회막에서' 해야 하는 시무로 구분이 됩니다. '직무'는 지켜야 하고, '일'은 수행해야 합니다. 예, 레위인에게는 지켜야 할 것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의 이 직무는 사순기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결코 은퇴란 없습니다(8:25-26). 다른 한편으로 레위인은 회막을 거두고 나르고 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5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4:3,23,30; 8:24). 그러면 레위인의 직무와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일터는 '회막'이

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9-10절을 보면 레위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입니다. '맡겨진'이란 말은 헌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에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맡아들 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러진

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러진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레위인처럼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1-13절은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맡아들을 대신해서 성별된 자들입니다(44-51절). 레위인은 결코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맡아들로 지명되었습니다.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꼭 짚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acts1284@daum.net

# 너는 내꺼야!

민수기 3:5-13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레위인 들은 '아론 앞에 서서' 곧 아론 제사장에게 순종하면서 시종을 드는 자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는 '회막'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부과된 일은 제사장 아론을 위해 '회막 앞에서'

과 수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막'을 지켜야 합니다. 회막이 세워져 있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회막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성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직무와 작업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노동임을 잊지 않고 맡겨진 직무와 작업에 최선을 다해 하나

인생이라는 사명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레위인만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서명 하셨나요? 서명 받고 계신가요?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선택이 아닌 자녀들을 지킬 필수적 서명 운동!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성정체성 혼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한 주민 발의 안을 2024년 11월 대선 투표에 부지기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이 지난 1월 시작되어 지금은 한여름의 더운 바람처럼 캘리포니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의 결과물!

딸을 잃은 엄마의 처절한 절규: 공립 학교의 트랜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인해 딸을 영원히 잃어버린 엄마 Abigail Martinez(아비게일 마티네즈)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흘린 눈물들과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이제는 다음세대를 지키는 마마베어로 변화했습니다.

이 발의안을 공동 제작한 Erin Friday(에린 프라이데이)는 평범한 soccer mom 이자 변호사로서, 평생 민주당당 뽑았던 비신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발의안을 저쪽 변호사와 공동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 역시,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자기 딸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게인 뉴턴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 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젠더, 성향: SOGI)'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에서 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 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들은 TVNEXT.org.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란?

2024년 11월 주민투표 (Initiative Measure ballot)에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 따라서 반드시 공식적인 청원서를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청원서는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신 후 무한정 복사를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절차:

4월 13일까지 모인 70만개의 청원서들이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11월 투표에 공식 법적 Measure 이나 Prop 으로 상정이 되고 난후 11월 투표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Protect Kids of CA ACT2024 발



의 안에 YES 로 투표하여, 충분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나오면, 지금까지 "주민 발의 안" 이었던 것이 그때부터는 주민이 통과시킨 "주민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1월 주민 발의 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명수와 날짜는?

CA 정부가 인정한 유효한 서명 총 550,000 개가 필수! 그러나, 캘리포니아 정부가 여러 이유로 무효화 (invalid) 시키는 서명들이 많기에, 총 700,000 (



칠십만)개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자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총 70만개에서 한인 커뮤니티만의 목표는 총 서명 목표량의 1/10 인 7만개 이상의 서명을 4월 13일까지 받는 것입니다. TVNEXT 주사로 보내셔야 함.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성취될 5가지 내용들:

1.안전: 공립, 사립학교 및 대학교까지, 출생 시 성별(남.녀)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Requires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colleges to restrict gender-segregated facilities like bathrooms to persons assigned that gender at birth; Repeals law allow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use facilitie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2.공평: 7학년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이라고 해도 여성스포츠에 참가 금지 Prohibit transgender female students (grades 7+) from participating in female sports.

3.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가 학생들 대상으로 '젠더 이름 만들기, 출생 성별 바꾸기' 등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을 학생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알릴(Notify, Inform) 것을 의무화. Requires schools to notify parents whenever a student under 18 asks to be treated as a gender differing from school records without exception for student safety.

4.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이 젠더(성 정체성) 관련된 건강검진, 정신검진, 시술 받는것 금지. 학교 의사의 권면과 행위 학부모의 "동의 consent" 가 있어도 18세미만 학생의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Prohibits gender-affirming health care for transgender patients under 18, even if parents' consent or treatment is medically recommended.

5. 납세자 세금 보호: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더 이상 정부 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 청소년들을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시술 /검사/ 정신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수백 만불의 비용 절감. 그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함. Summary of estimate by Legislative Analyst and Director of Finance of fiscal impact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otentially minor savings in state and local health care costs of up to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from no longer paying for prohibited services for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청원서에서 더 읽을 수 있음)

Protect Kids of CA ACT 다민족 / 한인 축제 및 서명행사에 초청합니다!

TIME TO STAND!!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희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다민족 목회자 및 리더들과 연합하여, 오는 3월 16일 토요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역하시는 남가주 서명운동본부들과 교회 사역자님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봉사 사역이 있으며, 수많은 다민족들의 참여를 예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 발의안을 제작한 팀원들과 특별히 Protect Kids of CA ACT 를 공식적으로 Endorse한 Chloe Cole(성전환자였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온)가 스피커로 올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참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때 재정이 어려워서 담임 목회자에 대해 사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조금 나아져 목회자에게 목회비를 드릴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교인들이 목사에게 사례를 드리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사례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열반사에서 공집사

목사사례비

A: 보통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가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목회와 설교에 전념하도록 소정의 생활비를 책정하여 매달 얼마를 드리기로 하고 목사를 청빙합니다. 교회가 재정 어려워서 개척교회 때에 담임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드리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었으면 담당 담임 목회자에게 매달 사례금을 책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신령한 것을 뿌리면 교인들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목사가 신령한 것을 주면 교인들은 물질로 목사를 섬기는 소위 Give & Take 정신입니다.

과거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에 대해 악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므로 참 사도가 아니라면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여러 교회에서 받은 보수를 바울이 탈취한 것이라고 하며 비난하였습니다.(고후 11:8)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후서를 써서 간증으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그 양 떼를 기르고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나 음식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을 치는 목자는 얼마든지 양의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떨어진 곡식을 못 먹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먹게 하고 농사의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소는 일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결코 돈을 바라고 목회를 하지 않으나 목사가 물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도록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교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회, 살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동남아 화교들의 설”

지난 2월 10일 설날을 전후 해서 말레이시아의 거리들이 텅 비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계들의 최고 명절이 설입니다. 이때는 각자의 고향을 방문하는 기간이며 혹 고향 방

문을 못하더라도 끼리끼리 모여 한, 두 주장을 즐기는 전통적으로 가장 들뜬 기간입니다. 동남아 화교들도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4, 5대 선조들이 중국을 떠나 처음 정착한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

는 증조부나 먼 친척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것도 한주에서 두 주간 축제 속에 대가족 속에 자신들이 한 소속임을 확인하고 어른들의 축복을 받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기까지 한 가족 결속의 시간이 조금씩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성장하는 젊은 화교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설날 기회가 될 때 가족, 친척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가 이런 담대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전통 속에 파고드는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쉽지 않지만, 삶의 변화를 맞은 젊은 성도들의 간절

한 소망이 그들의 친인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된것입니다. 설날 하면 중국인들은 “양빠오”라고 하는 빨간 봉투를 잊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양빠오”를 많이 준비하고 다니다가 기회가 될 때 자신들과 회사나 직장 자녀들, 친구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봉투 안에는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랑의 표현과 예쁜 그림들 또한 성경 구절과 전도 메세지가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기회가 생길 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적극적

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화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계들도 자신들의 축제 때나 친척들 모임이 있을 때 복음을 나누고 미얀마, 네팔, 필리핀 등 말레이시아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들을 향한 영적인 열망이기도 합니다. 화교들의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폭죽입니다. 그들의 전통문화 속에는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날 이후 8일째까지 지속됩니다. 밤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환한 빛으로 수를 놓습니다. 그들은 단채로 달 밝은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올해 악령들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하도록 비는 시간이며 환하고 우렁찬 빛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폭죽 문화 속에 담긴 의미조차 서서히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죽으로 악령들이 쫓겨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폭죽 형태는 유지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바꾸는 일입니다. 전통은 버리지 않지만, 의미를 바꿔서 쫓아내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설날 이후 8일째까지 지속됩니다. 밤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환한 빛으로 수를 놓습니다. 그들은 단채로 달 밝은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올해 악령들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Z세대는 "믿음 자체보다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더 관심 많다"

미국 애즈베리대 케빈 브라운 총장이 애즈베리 부흥 1년을 되돌아보며 “Z세대는 방향 상실과 역동성의 현시대 상황에서 정체되고 현실적인 신앙을 갈망한다”고 최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를 통해 밝혔다. 브라운 총장은 CT에 “애즈베리 부흥이 Z세대에게 가르쳐 준 것”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Z세대는 탈기독교 움직임으로 특징되는 ‘개주얼 기독교 문화’의 교정자”라고 정의했다. 개주얼 기독교란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겨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향유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난 25년간 자신의 편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교회 출석’ 하는 미국 기독교인은 4000만명에 이른다.



브라운 총장은 “신앙적 행동 실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Z세대의 특징”이라며 “진정성을 핵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이들은 진지하고 헌신적인 마틴 루터 킹,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앙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Z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 애즈베리대 학생의 말을 덧붙였다. 애즈베리대에서는 지난해 2월 8일 예배를 시작으로 학생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기도가 이어지며 16일 동안 24시간 끊이지 않는 부흥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는 5만여명이 예배당에 오갔으며 애즈베리 부흥과 관련된 1000개 이상의 보도가 나왔다. SNS에는 ‘#애즈베리 리바이벌2023’과 관련된 게시글이 2억5000만 개 가까이 기록됐다. 브라운 총장은 당시 뜨거웠던 부흥 현장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보여준 영적 갈망은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현장에 있던 다른 방문객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3 애즈베리 부흥의 증언을 기록한 ‘아웃포어링(Outpouring)’의 저자 제이슨 비커스는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긴 줄은 마치 1929년 대공황 시절 식사를 받기 위해 늘어선 줄을 연상시켰다”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목말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참전했던 한 애즈베리대 졸업생 역시 “기도회를 찾은 방문객들은 죽음을 앞둔 군인처럼 처절한 표정이었다”며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브라운 총장은 “Z세대는 종종 덜 종교적이며 SNS에 병리화된 집단으로 묘사된다”면서 “이들이 가진 회복력 있고 헌신적인 신앙을 신뢰하면서 수십년간 비워진 교회 자리를 채울 해독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국 유명 시럽 브랜드 ‘리얼스골든시럽’ 삼손서 유래한 ‘사자·벌’ 로고 바꿔 논란

영국인이자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시럽 브랜드가 최근 로고 변경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현지 교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이라며 결정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1883년부터 140년이 넘도록 이어온 로고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영국 ‘리얼스골든시럽(Lyle’s Golden Syrup)’이다.



리얼스골든시럽은 짙은 녹색 틴케이스(tin case·금속 상자) 위에 그려진 황금색 사자 사체와 벌레 로고(왼쪽)가 트레이드마크다. 로고 아래에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솔로몬 글귀가 적혀 있는데,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4절 문구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리얼스골든시럽 창업자인 아브람 라이이 고안해낸 디자인이다. 지난달 바뀐 로고(오른쪽)에는 이같은 솔로몬과 그림 등이 모두 사라졌다. 1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로고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제임스 화이트리 리얼스골든시럽 브랜드 총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현재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신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면서 “기존 디자인은 틴케이스에 한해 계속 생산할 것이기에 기네스 기록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영국 성공회 등 교계와 시민들은 “(로고에 그려진) 사자를 돌려보라” “오랜 전통을 버려선 안된다”고 업체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구성원들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역사를 배경으로 세워진 국가임에도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다.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전했다. 현지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 역시 “리얼스가 브랜드의 지속적인 매력을 순간적인 유행과 맞바꿨다”고 꼬집었다.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프랑스 의회가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 최초 사례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



성의 것이며 누구도 여성을 대신해 그것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4일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낙태권이 담긴 개헌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프랑스 역사상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아델 브론 피에 하원의장은 “낙태는 이제 우리 기본권의 일부”라며 “우리는 절대 이 자유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 직후 에펠탑에는 ‘내 몸은 내 선택’ 등의 문구가 표시됐고 낙태권 지지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다만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탈 총리는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라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수많은 여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의 비극과 그 고통에 대한 문을 닫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옛 트위터)에서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랑스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움직임은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본격화했다.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기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지난달 실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했다.

## 무장 갠단 활개... ‘무법천지’ 아이티, 총리는 행방불명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무장 갠단이 활개를 치며 국가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에서 군경과 갠단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 갠단이 공항 장악을 시도하자 군은 활주로에 장갑차까지 동원하며 방어했다.

공항 총격전은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달 8일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퇴 요구를 거부한 뒤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갠단은 이런 혼란을 틈타 연합체인 ‘G9’을 중심으로 포르토프랭스 일대에서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이들은 경찰서, 교도소에 이어 공항까지 습격했다. 지난 3일에는 국립교도소를 공격해 수감

자 약 5000명을 탈옥시켰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총리는 행방이 묘연하다. 앙리 총리는 치안 인력 지원을 요청하려고 지난 2일 케냐를 방문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는데, 이후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최악의 치안과 행정 마비 속에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만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이티 전국 학교가 난민 수용소로 변했다”고 전했다.

## 이란, 작년 834명 사형 집행... “권력 유지 하려 공포 조성”

이란 당국이 지난해 한해만 800건 이상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사형 집행으로 공포를 조성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있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과 프랑스에 본부를 둔 사형 반대 단체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지난해 처형 건수가 2022년에 비해 43% 증가해 8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간 이란의 연간 사형 집행 건수가 800건을 넘는 경우는 지난해와 2015년(972건)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IHR과 ECPM은 이란 당국이 사회 전반에 공포감을 확산시켜 반정부 시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는 2022년 9월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왔다. 지난 1월 23세 청년이 2022년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하는 등 2022년 ‘히잡 시위’와 관련해 그간 남성 9명이 처형됐다. 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834건의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에 공포를 불어넣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란 정권의 유일한 방도이며 사형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마약 관련 사건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한 사형 집행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IHR과 ECPM은 성명에서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2023년에 마약 관련 처형이 47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2020년의 1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된 사람 중에선 소수민족의 비중이 컸다. 이란 남동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은 167명이 처형당해 전체 사형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인권단체들은 배우자와 친지의 학대에 저항해 살인을 저지른 이란 여성들이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AFP는 작년 집행된 사형 가운데 이란 공식 매체가 발표한 건수는 전체의 고작 15%에 불과해 나머지는 IHR이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사물인터넷 시대의 목회

(1면에서 계속)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서 비밀하우스 농장에서는 현재 사용 중이다. 예전처럼 일일이 하우스마다 들어가 온도를 체크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일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저 심어 두고, 때가 되어 거두기만 하면 된다. 꽃에 말을 거는 친구들을 4차

원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있다. 나 역시 사물에게 말을 걸었던 적이 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사물의 인격화 놀이를 많이 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물과 대화하는 날이 오고, 사물 간에 소통하는 일이 생겨난다. 밤이 되면 장난감들이 상자에서 나와 서로 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상자 속으로 숨어버리는 상상이 더 이상 상상만은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생각 속에는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는 믿음과, 모든 만물에 하나님 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믿음까지 있었다. 자연은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상은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과 종이 한 장 차이로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세상이 온다면 자연 숭배 사상이나 범신론 같은 것은 더 이상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어 다자간 소통이 일어나면 신의 능력보다 과학의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될 것이고, 영적 영감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진 빅데이터가 그 빛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된다. 이럴 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사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과학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에도 의지하기보다 정보에 의지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이는 분명 신학의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시대에 맞게 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를 맞게 될 것

이다. 분명 과학의 발달은 인류를 윤락하고 편안하게 해 주었다. 쓸데없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천형 같았던 많은 질병도 극복하게 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과학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여 목회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교회의 현장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의자에 앉기만 해도 당일 출석수를 예배 중에 실시간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 등 아주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신학과 목회를 미리 정립하지 않으면 과학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듯 교인 수도 절약하게 될지도 모른다.

by 전재훈, TGC





#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 I. 칼 바르트 (Karl Barth)와 신정통주의 (Neo-orthodoxy) (4)

### (4) 존재의 유비 (analogia entis)와 신앙의 유비 (analogia fidei)

반틸 (Van Til)이 말하는 “인간의 지식이 유비적(analogical)”이라는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교에 따라 사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하여 사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 해야 한다는 말이다(Thinking in subjection to God’s revelation and therefore thinking God’s thoughts after him). 인간의 사교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교를 본떠서 사교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교와 인간의 지식은 파생적이다(derivative).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만이 본래적(original)이기 때문이다.

존재도 지식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일의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Neither being nor knowledge is ever shared univocally (i.e., identically) between God and creatures).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original)인 반면,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며, 제한된 능력에 맞춰진 외형(copy)이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들과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함보다 양적으로 더 클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의 선하심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술어를 하나님과 유비적으로 공유한다. (Nevertheless, because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we share this predicate with God analogically).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사랑에 있어

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비적인(analogical)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전달하신다.

우리는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식과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Creator/creature distinction).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대로, 그것을 나의 실존 속에 적용시킬 때 그것이 바른 지식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은 종속적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결정적(determinative)이며,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부속적(subordinate)이다(Van Til, Defense of the faith, 56).

하나님의 자기 지식에 대한 반틸



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We are, indeed, created in the image of God. Yet, we are not exactly like God. He is God. We are not).

반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incomprehensible)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partial)이며, 역설적(paradox)이고, 또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seeming contradiction).”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식은 유비적(analogical)이며, 역설적(paradoxical)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비와 역설이 없지만(no mystery and no paradox), 인간에게는 존재한다(Van Til, Defense of Faith, 61).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한도 안에서 수용적이고, 재구성적(receptively reconstructive)이지, 이성적 근거한 창조적(creatively constructive)이어서는 안된다.

“재구성적”(receptively reconstructive)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식 활동은

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식은 동어적(univocal)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의 지식은 동일하며, 일관성이 있고, 전혀 모순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 자신에 있어서 지식의 주체와 객체는 하나이다는 의미이다.

반틸은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분석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analytical). 여기에서 “분석적”이라는 말은 “종합적인 지식과 구별되며, 주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얻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의 지식은 자신 밖의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참조해서 얻는 지식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 스스로 가지는 지식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 모든 존재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파생적이며, 인간의 지식도 파생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은 절대적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에 의존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기초해야 인간이 바른 경험과 바른 사고가 될 수 있다.

(5) 바르트의 신학은 기독교 중심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과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리학 (Church Dogmatics)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의 낮아지심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더욱 강해지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변하지도 아니하신다.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아니하시며, 멈추어지지도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할 수도 없다. 그의 신성이 약해졌다고 가정된다며 그가 성취한 속죄가 의심스러워진다. 그가 겸손(낮아지심)했지만, 그 낮아지심이 그의 신성이 정지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바르트가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주장한 것은 정통적인 기독교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바르트의 2가지 서로 충돌되는 이러한 견해는 그의 입장이 변증적이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실존주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한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예수는 원역사(geschichte; 초역사, 의미로서의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 (2) 역사 세계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는 문제가 있으며, 신화이다. (3) 예수의 부활은 계시이다. 이 계시 안에서 성령의 새 세계는 육체의 옛 세계를 접촉한다. 그러나 그 접촉은 원의 직선을 접촉함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초월주의(超越主義, Transcendentalism)에 의해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다. 바르트의 주장속에서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인 자연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도 계시가 아니며, 동시에 성경도 계시가 아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3가지 형태를 말한다:

- 1)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원형이다 (in Jesus Christ, we have the Word of God in its original form).
- 2) 성경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말씀 (in Scripture we have the derivative Word of God):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말

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이다.

칼 바르트는 “그뤼네발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Grunwald, Crucifixion)라는 그림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한다. 칼 바르트의 책상 위에는 이 그림의 사본이 걸려있었다.

이 그림에서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옆에 서서 손에 성경을 들고 긴 집게손가락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요한복음 3장 30절이 펼쳐져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성경과 바르트의 신학의 근본을 잘 보여준다. 계시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쇠함을 통해 참된 계시인 그리스도가 흥하게 된다).

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3번째 형태는 교회의 설교이다 (the preaching of the Church).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과 무오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가 있는 증언이다. 오류가 있는 설교자가 성경에서 무오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오류가 있는 증언을 통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나타난다. 결국 바르트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수단이며, 성경 그 자체는 무오한 기록이 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바르트는 정통주의적인 인식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그리고 바르트는 예수님의 무죄성은 예수님의 존재 상태는 아니라고 고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그의 본질적인 상태는 우리와 동일하다. 그는 타락 후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이 본성에서 계속적인 죄의 시험을 받는다. 그의 무죄성은 그의 본질상 상태에 족한 것이 아니다.”(바르트, 교회 교의학 vol. 4, 284-85,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인용, 270페이지).

바르트의 이러한 기독교론은 전통적인 개혁주의가 아니다. 바빙크는 “예수님께서 그 주체로서는 아담에게서 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는 영원부터 새언약의 머리로서 택함을 받으셨다.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의 인격은 인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인류 밖에서 인류에게 들어오셨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원죄와 상관 없이 없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니 죄악의 오염과 전연 관련이 없다.”(박윤선, 교회 교의학에서 인용, 271페이지).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9235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교회</b></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계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Kirby Rd. Little Rock, AR 606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다민족찬양: 오후 8:00 태양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845-0288, Fax: (215) 845-206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벨렐교회</b></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10:0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b>보스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a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센터빌인간장로교회(PCA)</b></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79-9235 Fax: (703) 579-9191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445-1512, Fax: (215) 445-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야회: 오후 8:00 토요일전야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EM)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cc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cn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저항하는 성도(Resisting Christians)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합니다. protest란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까지 팔아 성당을 지은 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서 붙이고 종교개혁을 선언한 계기로 개신교를 진리를 위해 저항한다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하는 성도와 교회라야 병들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절대로 암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관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암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심장은 암이 없을까요? 심장은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위해 움직일 땐 움직이고 저항할 땐 저항하고 싸울 때는 싸우는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저항 신앙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라(Fight Against Sin)

첫째, 우리가 진리를 위해 저항할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왔노라"(마 10:34) 검을 싸움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검을 주신다는 것은 싸움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때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마귀를 정복한 후에 오는 평화라야 참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정복할 힘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상으로 인해 발이 썩어들어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 그리고 금은보석으로 그를 치장해줍니다. 그때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광경을 보고 수술을 서둘렀습니다. 예리한 칼로 썩어져가는 다리 부분을 과감하게 절단해냅니다. 살려내야 아파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도려내야 합니다. 썩은 부분은 절단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Family Discord)

두번째, 우리가 저항할 것은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마 10:35)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던 가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대자들이 예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국 대한민국도 선교 초창기에 이런 갈등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머리 깎인 며느리가 수건 쓰고 새벽기도에 오기도 했습니다. 장손이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가정불화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없는 가정은 이전의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 가정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불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의 사랑을 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시 126:5)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Love God First)

세번째, 저항할 것은 혈연적 관계마저도 끊어야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 10:37)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을 회유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부인과 자녀들을 데려다 두고 회유합니다.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은 신사참배를 하고 가족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뜻이 뻘췌죽 올라온 송관 위를 걸어서 감옥으로 가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 목사님은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등지고 찬송을 부르시며 송관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독생자를 주신

사람, 독생자를 내 죄 값으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사랑입니다.(롬 8:32)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네번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8)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보고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친히 끌고다오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마 16:24)

십자가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생명의 위협도 받고 출교도 당하게 되고 명예도 다 잃게 되었지만 끝까지 않고 "보름스(Worms)에 있는 모든 집 기왓장들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했으며 "재물과 친척도 갈 때면 가라, 잠깐 살다 죽는 생명도, 이 죽을 몸도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사죽생(死即生)이요, 생즉사(生即死)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마틴 루터나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저항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위대한 승리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세상 뜻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삶의 이야기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누구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과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눌려 일어날 힘이 없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모든 인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급하게 한국을 나왔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돌봐드리려고 오게 되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던 어느 날 어머니께 "삶에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어요?"라고 질문을 드렸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할 때였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기뻐했지만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다고 덧붙셨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함께 이날을 기뻐할 수 없었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러고도 삶의 이야기를 건네신다. 수줍게 웃으셨던 순진한 이십 대의 어머니와 꼭 결혼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불같은 열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고 결국은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말이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대학 입시 6일 전이었다. 새벽까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새벽녘에 들었던 친청벽력 같은 너무도 충격적인 비보는 행언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터라 아직 믿음이 뒤틀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풋내기 성도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응급실에 내 눈앞에 주검으로 누워계신 모습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은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치르고 돌아온 날 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들려던 그 음성,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삶의 허무감과 하나님의 실재에 혼란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나를 강하게 불러주며 다시 삶에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 돌아보니 아버지 부재의 깊은 터널의 시간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삼십여 년의 시간을 보내오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때로는 웃게 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울게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삶에 재해석을 하게 한다. 슬픔의 시간은 슬픔 자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며 교훈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보니 성도로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상황은 그 속에 절대자의 통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시편 16:11. 표준새번역).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습관 같은 기도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줄 때면 차에서 꼭 기도한다. 둘째가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첫째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하루는 딸 하나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

길래,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지.' 하고 말했더니, 아빠는 왜 눈 뜨고 기도하느냐고 한다. 그래서, '아빠는 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런거야.' 하고 말을 했는데, 잘 설득이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도 종종 눈을 뜨고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면 기도하는 내용이 늘 같다. 마치 외웠던 주문을 그대로 읊는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아침마다 한다. '아이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관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매번 별 다를 바 없는 기도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특별한 내용

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특별하게 대단한 문장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늘 평범하다.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진부한 습관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물을 마시면서 '물이 너무 지겹다, 오늘은 콜라만 마셔야겠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매일 습관처럼 밥을 먹으면서 밥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가족을 지겨워하지 않는다. 가족이 지겹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다

를 바 없는 습관처럼 기도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등산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감람산 중턱에 겻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당시 기도원처럼 쓰이던 곳이다. 예수께서 바로 그 기도하는 곳에 가셨다는 뜻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분명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아가시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말이다. 그

럼에도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해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예수처럼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wmcakim@gmail.com



나성순복음교회 설립 50주년 희년 감사예배에서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설립 50주년 희년감사예배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설립 50주년 희년감사예배가 4일(월)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진유철 목사의 사회와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희년감사예배는 박복길 장로가 대표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던 후 이영훈 목사(하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행 2:42-47)'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나성순복음교회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며 "주님의 은혜로 나성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교회이며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 개척하고 초대 담임인 김성수 목사님부터 현재 진유철 목사님까지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성령충만함

을 받아야 한다. 둘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 덩어리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며 "50주년을 맞이하는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훈 목사는 말씀을 마치면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테너 최원현과 소프라노 김은진이 특송을 했으며 안현 목사(순복음북미총회 총회장)가 축사를 한 뒤 북미총회 상임위원과 함께 축하 특송을 불렀다. 이어 본 교회에서 순복음세계선교교회에 5천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린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예배에서 송정미 사모가 찬양하고 있다

성화장로교회,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과테말라와 미주지역 40일 찬양투어가질 것"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예배를 3일(주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이동진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송정미 사모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

시 한 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연대성악가 선배가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평생 함께 동역한 사역팀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송영진, 최미, 최명자 등 찬양사역 선배님들과 함께 뉴욕, 뉴저지,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로 40일간 투어를 가게 된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송정미 사모는 '살롬', '주님의 성령', '놀라운 은혜의 강물', '기쁨부으심', '주안에 있는 나에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등을 불렀으며 '축복송'을 부른 뒤 이동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선미니스트리 예배와 반찬을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나누는 생활선교를 실시하고 있다

선미니스트리, 생활선교 실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야채와 반찬 나눠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6800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야채와 반찬을 나누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선미니스트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에 푸드

뱅크에서 반찬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김정환 선교사는 "황금기 선교운동을 하다 보니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먹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오렌지카운티 푸드뱅크에

선미니스트리를 등록하고 음식재료를 가져다가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러한 나눔사역은 오병이어 사역이자 생활선교"라며 "음식재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나누고 있으며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은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게 된다"고 말했다. 선미니스트리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이며 선미니스트리를 찾아오는 황금기 선교사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사역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중보기도시간을 시작하며, 선미니스트리를 찾아오는 황금기 사역자들을 위해 음식재료 세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 5시 음식재료 나눔시간을 마친 후 뒷정리까지 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이다. 자세한 문의는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 25주년, 선교교회 17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울타리선교회 25주년, 선교교회 17주년 기념 음악회 나주옥 목사 팔순 축하 행사도 겸해

울타리선교회 25주년, 울타리선교회 17주년, 나주옥 목사 팔순을 축하하는 작은음악회가 3일(주일) 오후 4시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에서 '늦깎이 삶의 끝자락에 걸터앉아'

라는 주제로 열렸다. 나주옥 목사는 "늦깎이 삶의 끝자락에 걸터앉아 80 여년을 되돌아보며, 울타리선교회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 기도와 카니 김울타리선교회 이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작은음악회는 명곡오페라아카데미 회원들의 합창(지휘진복일 원장)이 있었으며, 나주옥 목사, 안성주 장로, 나승렬 목사, 그리고 바리톤 채홍석 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곡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는 김용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참여와 초청의 예배...

인간이라는 의문도 뒤따랐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교회예배의 모든 것이 설명 불분명하다고 교회와 예배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방구석 온라인 예배를 맞본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의식이 그저 사회적 약속과도 같을 수 없이 많은 질문을 들어왔다. (대개 질문자들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예배학 책을 수십 권을 읽어도 음악스타일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람 지문만큼 각기 다른 미학을 지닌 곡들에 어떤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성경에 나온 찬양 용어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외운다 해서 좋은 예배음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와 좋은 교회음악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음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성경 전체를 밤낮으로 즐겨 읽으며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고자 주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평생에 걸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는 갈망함이다. 온전한 예배자는 두 단어를 목에 걸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 첫 번째는 '초정'이라는 단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정이다. 최근 한 젊은 과학도가 주일 회중예배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에 대해 말했다.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 회중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디서든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예배신학의 인용과 설명은 모두 회중예배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설명해 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이다. 회중예배 순서 속에 만들어진 행식의 강요가 올바른 것

서 찾을 수 없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 침묵하신 것일 수도 있다. 예배는 강제로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라 초청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가 품어야 할 단어는 '참여'다. 초정자에게 화답할 때 예배자가 된다. 찬양은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감탄한다는 참여의 가장 확실한 표식이다. 성찬이 절기 의식으로 남은 오늘날, 예배 속에서 찬양 외에 우리의 감탄과 감사와 경외함을 소리칠 수 있는 예배 순서가 또 있는가? 그러므로 예배음악이 어떠해야 한다는 안전한 기준은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할 것이다. 밴드음악이든, 클래식이든,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어떤 발생법으로 인도하든, 음악은 온 회중을 태워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에스칼레이터가 되어야 한다. 회중이 응답할 마땅한 내용으로,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음악대와 박자와 소리로 울려야 할 것이다. 각각의 폭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주된 목적이었던 바알의 제사(왕상 18:26-29)가 되지 않게 늘 주의하고, 음악의 기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 관계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흘러 넘치게 받은 힘과 능력과 기쁨의 잔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적시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일터와 가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사소한 언어 한마디까지도 그 기록함 속에 잠기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우리의 종착지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도시의 건물에서 새 삶을 살며 부를 희락의 노래를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계 21:1-4).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주인의 보좌에 앉지 말자.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초정이라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참여하자.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미주성시화 주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미주성시화 주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 “우리 삶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주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가 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진유철 목사 사회와 나성순복음교회 기쁜소리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와 양승호 목사(여의도순복음동부교회 담임, 북미총회 증경회장) 대표기도,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진리와 자유(요 8:31-3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결박에서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미국에 크게 빛을 진 것은 복음의 빛이다. 내년이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해다. 선교사들의 복음전파와 순교로 인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으며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변형하게 되었다. 하지만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교

회는 교권주의로 빠져 영적침체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기도운동이 회복되고 강력한 회개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는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성순복음교회 LM어린이성가대의 특별공연이 있었으며 지미고메즈 연방하원의원과 김영완 LA총영사가 축하인사를, 영김 연방하원의원,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검사장, 메리 엘레나 두라조 거주상원의원, 존리 LA시카운슬러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했다. 이어 미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시간을 가졌는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미국을 위한 기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김진진 목사(기쁜우리교회 담임)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강신호 목사(일산순복음교회 담임)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으며 이날 기도회는 이영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OC한인회 주최 3.1절 105주년 기념행사 가져

“삼일절을 후대에 알리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 기억해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 이사장 서준석)는 3월 1일(금) 오전 11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가졌다. 조봉남 회장은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독립운동 나라사랑 정신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키고 자유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선조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삼일절을 후대에 알리고 독립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오늘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태 한인회 총괄부회장 사회로 열린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조봉남 회장 환영사, 이문연 신부(성공회) 기도, 이정길 교무(OC 원불교) 독립선언문 낭독, 권성환 LA부총영사 대통령기념사 대독으로 이어졌으며, 설증혁 미주평통 OC-SD 회장, 박광정 회장(재향군인회 미남서부지회), 권석대 회장(한우회)이 3.1운동 기념사를 했

다. 이어 독립운동가 장형근과 신정숙의 후손인 장미라 회장(미주광복회), 테미 김 알바인 부시장,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팍 부시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날 모든 이들이 삼일절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만세삼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는 무궁화합창단(단장 강성희, 지휘 지경, 반주 정다운), 샬롬합창단(단장 조영원, 지휘 강미경, 반주 인희경), 실비치합창단(단장 김형구, 지휘 송규식, 반주 조애영)이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인회관 물 안을 함께 돌며 3.1운동을 재현하는 태극기 대행진을 가진 후 마쳤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개신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순서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의 행사순서에 배제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준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호 기자)



OC한인회 주최 삼일절 105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한인회관주변을 돌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열매교회 토마스쉬마우스장로가 김요섭 담임목사에게(우측) 축하패를 전하고 있다

### 김요섭 목사 성역 32주년 기념 출판감사예배

서평...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책’

김요섭 목사(열매교회)가 성역 32주년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혜와 고백’을 출간하고 4일(월) 오전 11시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준우 목사(가주노회 서기)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기도 장우호 목사(가주노회 부회록 서기) 설교 임명진 목사(가주노회 부회장)로 진행됐다. 임명진 목사는 “마음 정하기”(시 108:1-4)란 제목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다 읽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수영 사모의 특송과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의 저자 소개가 있었으며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이정남 목사(가주노회 증경노회장)의 축사와 정인재 박사(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교수)의 서평이 있었다. 정인재 박사는 “이 책을 꼼꼼히 정독하며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감동했다”며 “10가지

제안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것은 올바른 개혁주의의 관찰과 해석”이라고 평했다. 또한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삶을 관찰하고 그것을 소재로 글을 쓰며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려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열매교회 토마스쉬마우스 장로는 김요섭 목사에게 15년 동안 목회를 이끌어온 것과 책 출판을 축하하는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오세훈 목사(KAPC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요섭 목사는 한남대학교 철학(BA), 총신대 목회학 석사(M.Div), 리포드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석사(M.A.C.E), 커버넌트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1월 제일성도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의 첫발을 내 디딘 후 이민목회를 시작했으며 2009년 2월 남가주리디미교회(현 열매교회)를 설립하여 15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Tvnext 다음세대 지키기를 위한 ‘타임 투 스탠드’ 모임**  
Tvnext(대표 김태오 목사, 새라킵 사모)는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주민발의안 서명을 위한 모임을 ‘Time to Stand!!’라는 주제로 16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찬양과 예배, 서명받기, 상담과 교제 등의 시간을 갖는다.

▲ 문의: Tvnext.org@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새생명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새생명축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9일(토)과 10일(주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새생명축제의 강사는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9일(토) 오후 7시, 10일(주일) 1-4부 예배이다.

▲ 문의: (714)772-7777

**동양선교교회 부흥사경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사경회를 ‘공화를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8일(금) 오후 7시, 9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0일(주일) 오전 7시30분, 9시30분, 11시30분이다.

▲ 문의: (323)466-1234

### 각 교회 및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결재 웹페이지 무료제작 지원신청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대표 제임스 구 교수)는 2024년도 사역으로 각 교회 및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및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결재 웹페이지 무료제작 지원신청을 접수 하고 있다. 이번 무료 제작 지원은 가주에서 POS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의 재정적 현신에 의해서 무료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3월 한달로 한정하며 선착순 10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 (949)667-0264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춘계부흥회가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김경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갖는다. 일정은 15일(금) 오후 7시30분, 16일(토) 오전 5시30분, 17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이다.

▲ 문의: (213)3521-9975

**달라스중앙감리교회 2024 부흥회**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는 2024 부흥회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5일(금) 저녁 8시, 16일(토) 저녁 6시, 17일(주일) 1-4부 예배이다.

▲ 문의: (972)258-0991



이대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 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대 음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는 마음담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설립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2일(토) 오후 4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본교 음악대학 학장 곽은아 교수는 “이대는 1886년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당시 한국여성의 사회적 어려운 삶을 목격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설립한 학교”라며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가 되었고 194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대학 인가를 받아 1946년에 이화여자대학교로 개칭하여 오늘날 여성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금의 음악대학은 1925년 음악과를 설립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다. 이화 음악교육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준비하며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는 마음을 담은 감사음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음악회가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일환 이대 교수와 이나래 동문(SBS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박혜은 박사가 ‘칭’을 대금연주를 했으며, 곽은아 교수의 가야금과 김경현 교수의 장구로 ‘김윤독류 가야금 산조’ 연주, 드라마 대장금의 OST 중 ‘오나라’를 박혜은 대금, 김향란 가야금, 주희정 피아노 연주, 현악 앙상블(바이올린: 이정하, 박보아, 이나래 바이올린, 첼로: 배일환 교수), 그리고 소프라노 김종숙이 ‘내 마음의 강물’,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이날 콘서트는 전출연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앵콜 곡으로 부르며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연론관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 주민발의법안 서명 운동본부 조찬기도회

“교회와 단체, 언론의 적극적인 협력 절실”

CA주민발의신청 서명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4일 오전 7시20분 뉴서울호텔내 식당에서 연론관계자초청 조찬기도회와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찬기도회는 박세헌 목사 사회로 양경선 목사 기도 후 강순영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강목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으로 “미국이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며 제사장 민족을 삼기 원하셨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 미국도 정교도의 꿈과 정신이 사탄의 대적으로 무너뜨림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합쳐 다시금 성령의 계절,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기도회를 통해 △서명운동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 △모

든 지역교회가 동참하도록 △이 운동에 언론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샘신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드렸다. 3부 현황보고 시간을 통해 강태광 목사는 “서명을 통해 강태광 목사는 “서명자는 10,000명(3월3일 통계)을 웃돌고 있으나 7만표를 서명 받아야 하는 상황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경선 목사, 강순영 목사가 서명방법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한 뒤 김창호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으며 부에 나파 시온, 한남 마켓, 풀러턴 아리랑마켓, 토랜스 한남 마켓, 소스몰 과 LA 김스전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자세한 것은 tvnext.org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서명운동본부에서는 각 교회마다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 갈수록 진화하는 이단 포교... 캠퍼스는 '이단경계주의보'

“첫사랑을 찾아드립니다.” 수 년 전, 대학 신입생이었던 A씨는 캠퍼스에서 낯선 이로부터 뜬금 없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까지 알고 있었다. 신천지 신도였던 그는 “누군가 당신을 첫사랑이라고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만남을 종용했다. A씨는 결국 만남의 자리에 나갔지만, 상대방 대신 자신을 이벤트 진행자라고 속인 신천지 신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B씨의 경우도 예전에 자신의 번호로 ‘OO 언니’의 전화를 받고 여러달절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B씨는 그 순간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빌려줬던 기억을 떠올렸다. 낯선 이로부터 빌려 가는 척하면서 자신의 전화 번호를 저장한 것이다. 코로나19 전후로 기승을 부리

던 이같은 이단 단체의 포교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종교거래 사이트, 동네 취미 모임으로 접근하는 등 포교 방식이 다양해졌다. 젊은 세대의 문화 코드를 집종 공략해 K컬처·축구·댄스·힙합 등 다양한 동아리로 위장해 캠퍼스 내에 숨어 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캠퍼스 내 이단 포교 활동이 1년 중 가장 활발한 때다. 다시 말해 캠퍼스 내 이단 포교 단체와 교회 청년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캠퍼스 선교단체 연합체인 캠퍼스 회복연합회(학복협·상임대표 김대구 목사)는 캠퍼스와 교회 청년부의 이단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단경계주의보를 발령했다. 타지역 현대종교 소위장은 5일 “요즘 이단은 아예 대학교를 만드는 수준”이라며 “특히 신학과 기독교 대학 학생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단 신도 가운데 목사 안수까지 받는 일명 ‘신분세탁’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단 단체가 일부러 정식 기독교 단체와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혼동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드시 각 대학교목실에 문의해 이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수전도단’은 정식 단체지만, ‘땅끝 예수전도단’은 이단 단체다. 또 ‘IVF(한국기독교학생회)’는 구원과 유관 단체인 ‘YF(국제청소년연합)’와 혼동하기 쉽다. 신천지의 경우 텔레마케팅이나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단들의 포교 방식만큼이나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이단 대처법도 다양하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가입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해 사전에 이단 신자를 가려낸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생 연합회(연기연)의 경우, 매년 서류 심사를 통해 검증된 선교 단체에 한해 패찰을 발급하고 학기 말에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 학생들은 교회와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 외에 성경 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참여할 경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출석 교회 사역자에게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단 상담도 활용할 수 있다. 학복협이나 현대종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등에 의뢰해 이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독립운동가 배출한 130년 교회의 특별한 '시낭송' 교회 창립 130주년 맞아, 항일시, 자유시 등 낭송

“어머니, 불의의 총칼 앞에 죽음을 오히려 희망입니다. 되찾은 내 나라 내 땅에서 활짝 웃으시는 어머니 얼굴 뵈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종로교회(강성률 목사)에선 절절한 마음으로 시를 낭송하는 소리가 나왔다. 수원종로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피기춘 장로)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낭송 콘서트’ 현장이다. 이번 시낭송 콘서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교회 창립 130주년과 3.1절을 맞아 나라 사랑과 애국지사

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가 열린 수원종로교회는 이하영, 임면수, 김세환, 이선경 등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배출한 교회이기도 하다. 콘서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인 약 200여 명의 교인들 앞에서 항일시와 자유시 등을 낭송했다. 특히 항일시의 경우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이 읊어져 감동을 자아냈다. 박재신(60) 주보혈교회 장로가 ‘어머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하자 김정미(61) 원

주 계운감리교회 권사가 ‘장한 내 아들 보아라’라는 제목의 답시를 낭송했다. 시가 낭송되는 동안 콘서트를 관람하는 교인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수원종로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인 임금자 권사는 “시낭송을 처음 듣고 보았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독립투사들의 눈물겨운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자유시를 낭송했다. 강성률 목사도 특별 출연해 성완희 시인의 ‘꽃’을 읊었다. 강 목사는 “지금껏 목회 인생에서 시를 낭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소중한 경험이며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시낭송 콘서트가 전국 교회에서도 한 번쯤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창립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원로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이뤄진 시인·시낭송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낭송을 공부하고 있고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을 방문해 위문시낭송회를 열고 있다.



### “마약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약예방치유사역모임 ‘은구’ 첫발

‘은구’(恩求).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힘입어 마약예방치유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N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마)의 앞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정지인에서 ‘마약퇴치전도사’로 거듭난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가 주도해 만든 마약예방치유사역모임 ‘은구’가 첫발을 내디뎠다. 은구는 4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김정석 목사) 사회방사관 컨벤션홀에서 첫 모

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을 예방하고 마약중독자를 치유·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함께 펼치기로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은누리교회, 만나교회, 분당우리교회, 안산꿈의교회, 신촌성결교회의 부교역자들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고 배우 차인표, 신애라 씨도 자리를 함께했다. 마약전문가인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이 ‘마약중독의 실태와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 전 원장은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미 마약단속 사범이 200% 넘었고 그 중 20대가 30% 이상 많다. 10대는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중독의 저연령화를 우려했다. 그는 “중독은 단 한번으로 시작된다.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가 된다”고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마약중독에서 회복된 양선영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장과 마약중독자 가족인 이선민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이사장이 ‘마약중독의 실제’에 대해 증언했다. 양 소장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장을 맡았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마약 치료의 길이 마련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동역하고 있는 차인표씨는 환영인사를 통해 “마약으로 힘든 연에게 친구들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R&B 가수 범키도 신앙으로 마약에서 회복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중3대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국에 갔는데 편이 없고 호기심 많아 너무 쉽게 대마초 접했다”며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11년간 살아오다 30살에 하나님 만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라. 어디든지 불려가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며 찬양곡 ‘웨이 메이커(Way Maker)’를 불렀다.



### 도심 속 순례길 조성된다... 다음세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사장 전재규 장로)이 오는 11일 서울 아현성결교회(손재운 목사)에서 서울지부 출범식을 열고 서울 내 기독교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순례길 조성예

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부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조직교회인 서울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와 1885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서울 동동제일교회(천영

태 목사)를 비롯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등 서울의 기독교 역사 문화 자원을 있는 순례길을 단계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지부장 내정자인 박옥배 장로는 “순례길 조성을 통해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와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고자 한다”며 “특히 다음세대에 그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순례길 상임이사인 임병진 소악교회 목사는 “서울 순례길을 비롯해 전남 신안 12사도길, 광주 양립선교동산, 대구 청라 언덕길 등 전국의 근대 기독교 순례길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감사예배에선 문성모 전 서울장신대 총장이 ‘순례길’(신 32:7)을 주제로 설교한 다. 축도는 조원근 아현성결교회 원로 목사가 맡는다.



###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신앙 유산은 기도”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주최 부산마마클럽 어머니금식기도회

부산성서화운동본부(부산성서화·박남규 본부장)가 다음세대와 함께 주최한 2024 부산마마클럽 제13회 어머니금식기도회가 지난 1일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열렸다. 2000년 6월 7일 창립된 부산성서화는 하나님 나라 부흥에 이 임해 330만 부산 시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 실천 운동기관이다. 어머니금식기도회에는 서울, 춘천, 연천, 제주 등 30개 도시에서 1300여 명 성도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전국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감동이 됐고 잊지 못할 깊은 은혜가 있었다. 교회 본당은 일찍부터 전국에서 모

여든 기도의 용사들로 꽉 찼다. 부산은 기도회에 참석한 5500여명의 어머니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소리로 뒤덮였다. 부산성서화 박남규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전사가 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성서화 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기도 밖에 살길이 없다.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믿는다”고 인사를 했다. 부산성서화 전 수석본부장 박정근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까지 이끌어주셨다. 각 가정 본당은 일찍부터 전국에서 모

어주시 거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마마클럽대표 조금영 권사는 비전선포 및 사명선언문낭독을 읽은 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단비를 내려달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자”고 선포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는 ‘나는 주만 따르리’(계 14:4)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유 목사는 “기도는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기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기도한 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전국 어머니들의 두 눈에는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번 행사를 현장에서 전두지휘한 부산성서화 사무총장 성장민 목사는 “올해 들어 부산성서화운동본부가 9월 해운대성령대집회와 2025년 1월 청소년 월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기도회가 첫 번째 정검다리 집회였다”며 “오는 6월 아버지 금식기도회, 7월 714기 도대성회, 8월 코스타 월드캠프, 8월 15일 전체 준비 기도회로 이어지는데 오늘이 도화선이 되는 귀한 어머니금식기도회였다”고 평가했다.

##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D.Th.D)

1(금) 오전 서울 능력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1(금)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2(토) 오전 DHA(미연방미약단속국) 한국 Ceremony  
4(월) 저녁 서울 행복이넘치는교회(김영달 목사) 010-5184-1660  
5(월) 오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대표회장 김진욱 목사) 010-3443-1541 장소 :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6(수)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능 목사) 010-2391-3004  
7(목) 저녁-8(금) 2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9(토) 오후 서울 동노회(황규태 목사) 노회장 취임식  
10(주) 밤~13(수) 제주도 한미교회(김건수 목사) 영성수련회(대회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14(목) 오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진포럼 장소 : 서울 Plaza Hotel  
14(목)~15(금) 의성 호림선교회(원장 박미연 목사) 010-6514-7371  
16(토) 오전 Special Event AM  
18(월) 4시 평창 새생명교회(총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제237차 해외성회(236th Overseas Assembly)  
18(월)~19(화) 일본(JAPAN) 동경 예수시라교회(정스대만 선교사)  
20(수) 일본(JAPAN) 동경신학교(학장 정스대만 목사 신학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21(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예수시라교회(김태실 선교사) 우에노공원 대중전도집회

2(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 지도자대회(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23(토) 오후 서울 국제선교회(이사장 김영준 목사) 특강  
24(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870-5642  
25(월)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노헤미야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주최 : 북한선교회(대표회장 강대호 장로)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한국사명부흥사회(대표총재 김인기 목사) 010-5277-7593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C(모토) Fax. 02)401-7770



# mission 선교의 창 (23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국가로서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적 뿌리

요즘 한국에서는 건국 논쟁으로 뜨겁다. 몇 일전 3.1절 기념행사와 이승만 대통령을 다큐멘터리 화한 영화 (Documentary Film) "건국전쟁"의 영향이 크다. 우리 민족은 건국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 사람마다 단체마다 생각의 차이가 크다. 바라건대 학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합일된 안이 도출(導出)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체 내, 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남북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따라서 한

글을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1919년 3.1 운동 건국론이다. 그것은 미국을 중심 한 여러 나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을 건국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상해임시정부가 시작된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부류도 있다. 이 두 주장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셋째 절충론이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즉, 상해임시정부가 태어를 임태한 것이라면 이승만 독립 정부는 그 잉태된 태어를 출생한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넷째 개천절 건국론이다. "동국통감"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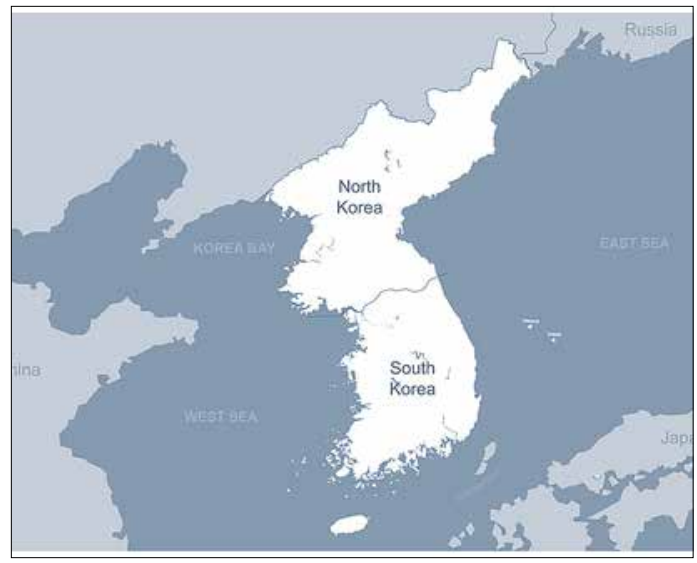
에서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 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3.1 독립선언 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1 독립선언서에 대해 \*자주 독립하는 나라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 \*투쟁이 비폭력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독립선언서 말미에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독립 국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

1) 고조선시대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세웠다고 한다. 이는 한민족의 최초 국가이다. 해당 기록은 단군 신화와 함께 서술된 것으로 그 정확성을 모호한 점이 있다. 고조선이 중국 측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7세기에 쓰인 제나라의 관자(管子)로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2) 삼국시대이다. 이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일컫는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백제(660년), 고구려(668년) 차례로 멸망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는 통일신라 북부에는 발해가 들어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간다. 3) 고려(高麗)시대이다. 이때는 918년 태조 왕건이

6) 분단 시대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으나, 곧이어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해 주둔함으로써 국경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좌우의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결국 1948년에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후 그해 8월 15일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024년은 남북이 분단 된지 76년째이다.

맺음 말

건국(建國)이란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 한민족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아직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렇다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국가로서 우리민족의 뿌리는 세계 제 2차 대전 후 탄생한 신생 독립 국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그 때 건국되었다면 우리 역사는 불과 80년도 안될 것이다. 우리 조국은 올해로 4357년을 맞이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배달(倍달)의 민족 국가이다. 그간 1천 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과 노략을 당했어도 사라지거나 타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정체성을 지니며 오늘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지금 세계 234개 국가 중 국력 10위 안에 든 선진국이 되었다. 엄연한



한민족은 국가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조국(祖國)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행하며 힘을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인생 터전이 되어 준 나라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깊어야 한다.

인 크리스천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이상 이념적 대립을 자제하고 서로 용납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뜻대는 남북이 평화 통일되며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이다.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기술된 내용을 서력으로 환산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고조선의 건국일자로 보고 이에 근거한 대중교 적 기념일이자 국경일인 개천절을 건국절로 간주하자고 한다. 다섯째 건국 미완성론이다. 이 주장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독립 운동가들이 꿈꾸던 통일된 독립 민족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건국은 남북통일을 완수한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전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시기다. 당시 신문도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표기했다. 이 회장은 "나라는 있었지만,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큰 착오"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다.

공예의 태봉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다.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한 이후, 1392년 조선 왕조에 멸망하기까지 475년간 한반도를 지배하였던 왕조이다. 4) 조선(朝鮮)시대이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5) 일제강점기 시대이다. 일본은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 36년간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다. 제1기인 무단 통치 시기, 제2기인 민족 분열 통치 시기(소위 문화통치), 제3기인 민족 말살 통치시기로 나뉜다.

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흑백논리로 밤낮 싸울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우리는 속히 건국논쟁을 매듭 짓고 한 겨레로서 손에 손을 잡고 막힌 답들을 돌파해 가야한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란 말이 있다. 즉,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맑은 그 향기로움이 난초와 같다. 두 사람도 이정도 일진대 한민족 전체가 뭉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1997 IMF 때와 2002년 월드컵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기상으로 나아가자. Jrsong007@hanmail.net

###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내포된 의미

헌법은 전문(前文), 본칙(本則),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서두로서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및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 2. 건국절에 대한 여러 견해들(참고: 나무위키https://namu.wiki)

첫째 1948년 8. 15일 건국론이다. 대체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 날을 지지한다. 이유인즉,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서 8.15

### 3. 이종찬 광복회장의 변(辯)

이 회장은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이태일리와 인터뷰

### 4. 한민족 국가의 주요 역사(참고: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31강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2) (여호수아10-24장)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전 연합국과의 전투가 아무리 족속들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전역에서 족속들과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갯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수 11:1-4).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며 성장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 수백년 하다가 이제 막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이들의 전략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

씨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두려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 정탐꾼 중 10명에게 보였던 아낙 자손과 같고 사울과 백성들 앞에 40일을 밤낮으로 나온 골리앗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불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신 20: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관건은 적군의 강함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적군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관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

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수 11:6)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합니다(수 11:7,8,10-14).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당시 전쟁의 최고의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확보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다음 전쟁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느

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전쟁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했습니다(삼하 8:4/ 대상 18:4).

이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수 11:9).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수 11:15).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안내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성경의 기록은 단숨에 요단을 건너 들어와 전쟁에서 단숨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수 11:18). 그리고 가나안은 땅이 점령되고 전쟁은 그쳤습니다(수 11:23).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쳐죽인 왕들

을 기록합니다(수 12:1-24).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정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수 13:2-7) 특히 성경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수 11:22)고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조금 남은 듯 보이는 이곳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의 또 다른 울무로 작용할 것입니다(출 34:12/ 신 12:30/ 수 23:13/ 삼하 21:1-14). '가사'는 사사 삼손이 눈 뽑히고 멧돌을 돌린 곳이고(삿 16:21) '가드' 족속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으며(삼상 17:4) '아스돗'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계가 있던 곳입니다(삼상 5:1-5). 이 완전 정복의 실패는 여호수아의 한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이고 더 나아가 구약의 한계이고 율법의 한계이며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도움, 진정한 구원자를 통치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마귀가 주는 생각 (눅 4:13-14) 찬 325장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떠나기도 한다. 마귀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준다. 그 생각을 발전시키며 오해하게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사망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더욱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하여

시기심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악한 생각을 더하여 준다.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사울 왕은 계속하여 그를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되어 마귀의 종으로 살며 속은 것이다. 평생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 살면 육신의 생각에 쉽게 빠져 누리고 살게 된다.

## 화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눅 4:17-19) 찬 357장

악한 영의 생각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은 마귀의 포로가 된 모습이다. 그리고 영적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 주인을 보지도 못하고 대적도 보지도 못하고 자신도 보지도 못하고 어둠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이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구원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자신에게 주님이 계시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영적 빛이시다. 그 빛이 임하므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난다. 빛이 함께 하여야 어둠에서 자유를 받는 것이다. 당신에게 빛이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 수 귀신을 쫓는 예수의 권세 (눅 4:36-37) 찬 370장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는 것이다. 주님의 권능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마귀도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피조물이다. 귀신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귀신이 그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있을 때 마귀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도망한다. 그래서 주님이 곧 나의 구원이

시며 권능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 주님이 같이 하셔야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다. 악한 영은 살아 계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실 때 주님 때문에 도망한다. 죄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죄의 생각들이 마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목 영적 소경의 눈을 여시라 (눅 5:4-8) 찬 499장

시몬에게 영적 눈이 열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깨닫게 됐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다. 영적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신 것이다. 물고기를 잡자기 넘치게 잡게 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이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며 예수님 앞에서 시인했다. 놀랍게도 그가 깨달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에

매인 자임을 보게 된 것이다.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하여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많은 물고기 보다 더 귀한 자신을 영원히 구원하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 금 진정한 주인 (눅 5:10-11) 찬 390장

이제까지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자가 진정한 자신의 주인을 깨달은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영광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귀한 재산이요 생활의 수단인데 그 배를 버릴 수 있도록 무엇이 그것을 버리게 할 것인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즐겁게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소유한 증거인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

리게 하신 것이다. 죄 아래서 사는 자기 자신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이신 나를 책임지는 사랑의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육신 안에서 수고하며 살았던 것인데 벗어난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낯선 대로 사는 것이다.

## 토 나병 환자의 구원 (눅 5:12-13) 찬 374장

나병 들린 사람을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며 믿음을 주신다. 그는 믿음을 따라 주님에게 나온 것이다.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온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한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말을 하지 않고

록 하여야 한다. 비록 그 믿음을 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부정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는 법인데 나병환자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한 것이다.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면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

# 교회음악 이야기(54)

## 날 위하여 십자가에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지리산 깊은 계곡에 희귀한 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연못 위로 소나무가 죽 늘어져 있어 허구한 날 비치는 소나무 그림자를 보고 자기 몸에 무늬마저 그 그림자와 같게 새겨지게 한 '가사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사시정철 낙락한 소나무의 기상을 담은 그 물고기는 아주 희귀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한 깊은 사랑이 가사어가 자신의 무늬를 소나무 그림자 같게 만들려는 열망을 갖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가슴에 찬양으로 새겨지고 싶은 열망을 담게 하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은 대표적인 찬양 중 하나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How Can I Keep From Singing)"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미국의 제 삼차 대 각성 부흥 운동(Third Great Awakening) 시기에 가스펠 찬송을 많이 작곡하며 교회음악에 큰 공헌을 했던 미국의 침례교 목사요 작곡가인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1899)가 1869년 그의 노래집 'Bright Jewels for the Sunday School'에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의 원래의 내용은 시편 96편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의 의로우신, 광대하심, 존귀와 위엄,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하실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온 세상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묵상한 로우리 목사는 "내 삶은 끝없는 찬양 속에 흘러가고 어떠한 폭풍이 내 마음의 고통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을 가지고 19세기 후반 일본의 찬양 사역에 힘썼던 사사오 테스 사브로(T.Sasao, 1868-1914) 목사가 원제목의 소재를 불리고 제목을 "날 위하여 십자가에"로 만들어 전체 가사를 페르디 하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 교회에 소개하여 이 찬송이 대중화 되게 된 것입니다. 원 저자인 로버트 로우리가 의도한 찬양을 드러야 할 그 당위성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 "말씀을 통한 축복",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이지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의 서신들 가운데 그의 사역 철학을 한 절로 표현하려면 필자는 갈 6:14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속에 사사오 목사가 만든 찬양의 핵심 즉 "십자가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마무리 하며 복음 이외에 다른 할례와 율법도 지켜나가야 전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선생들의 유혹에 혼돈하고 있

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라고 정의해 주는 명장면이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전부였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한국의 조혜영 작곡가가 사사오께서 써놓은 십자가 복음으로 연관된 세 절 구절을 가지고 절묘하게 편곡하여 스토리를 펼쳐놓은 합창곡이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서정적인 주 선율을 대입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구슬프게 읊조리듯 하게 합니다. 이것을 여성에 이어 남성이 반복을 하며 강조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으니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당위성을 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축복, 음악의 형태를 케논(돌림노래)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을 하다가 이 부분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통한 축복"은 호모포니 형태로 바꾸어 강조를 줍니다. 이어 두 번째 찬양의 당위성을 표현할 때 다시 케논으로 돌아가 울림을 강조하다 마지막 절 강조를 향해 전환시킵니다.

마지막 삼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을 끊지 않겠다"는 강렬한 다짐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호모포니 형태의 강한 다이내믹 그리고 음정을 2도 반이나 격상시켜(F-Ab Major) 복음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 그 환희를 표현하며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 케논형태를 다시 등장시켜 찬양의 당위성을 큰 울림으로 남게 하며 아르페지오의 반주 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등장시켜 종결합니다. 세계의 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화롭게 음악으로 펼쳐 "십자가 복음"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하나의 드라마로 펼쳐놓은 곡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도 사람들은 십자가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에 필자는 깊은 동의가 됩니다. 이에 소나무 무늬를 자기 몸에 새기며 사는 가사어처럼 우리의 몸에도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인 복음의 십자가를 한 수 한 수 가슴에 새기는 찬양을 드러려는 열정을 갖게 하는 올해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탕부 하나님」을 읽고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한미란 집사
(가스펠교회)



책을 손에 쥐게 된 것은 이 책의 제목 때문이었다.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탕부로 표현한 단어가 내게는 너무나 생소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탕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마음속 의문도 속일수는 없었다. 평소 팀켈러의 책을 좋아했고 그 영성을 존경했다. 팀 켈러는 무슨 의도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탕부'라 부르고 있는가.

이 책의 원제는 The Prodigal GOD이다. Prodigal의 사전적 의미는 '낭비적인 소비'를 뜻한다. '사치스럽게 소비한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험포'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사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앞에 붙여야 하는 형용사일진대, 아버지 앞에 붙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식어가 궁금해 나는 단번에 책을 읽어내려 갔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탕진하셨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무모하게, 그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아들에게 파지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 사랑을 주셨다. 은혜도 모르는 아들은 그 사랑을 받고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조카가 한 명 있다. 어려서부터 소아암으로 인해 어린 것이 병원신세를 많이도 졌다.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아님, 가족 뿐 아니라 기도부탁을 할 수 있는곳은 모두 동원하여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

구했다. 나을만해서 기뻐할라치면 병원에서 들려온 암울한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기도제목이 생겼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 가려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모인 내 마음이 이렇진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언니는 그야말로 가냘픈 병든 아기 새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끝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어미 새의 사랑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삶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 두 아들은 각기 서로 다른 무지개를 찾아 삼반된 두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올바른 도덕성과 자신의 의가 행복이라며 동생도 불여유 없이 아니, 동생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달려간 형에 반해, 아우는 내 개인의 자유와 완전한 독립이 행복의 척도

였다. 서로 다른 두 길을 갔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두 형제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권위가 싫었고 그 속박이 불편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우의 품행을 비난했으나, 이 책을 읽으며 큰 아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보았으며, 그 큰아들 또한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 두 아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한 자식은 없었다. 아버지는 살과 피를 내어주며 자식을 위해 그 사랑을 낭비하진만, 그 두형제의 목표는 아버지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사랑을 의무로 변색시켰다. 그렇게 두 아들 모두 틀렸지만, 그렇게 두 아들 모두를 품으신 아버지.

아우가 돌아와 베풀어진 기쁜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에서 큰

아들은 화를 냈다. 큰 아들의 분노와 원망을 읽으며 나는 화가 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킬길 원하시는 사랑의 당부가 들렸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다독임은 주도적인 은혜로 포기도 없었고, 끈기 있게 나를 기다리셨다. 나는 내 종교적인 행위가 자식의 행복과 비례할 거라 착각했었다. 남들이 좋다고 혀를 내두르는 학교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오해했었다. 이 책을 통해 차분히 나를 설득하시는 아버지는 나에게 또 시간과 사랑을 낭비하고 계셨다. 결국,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바라던 학교가 아니라, 아들이 꿈 꾸던 대학이 아니라 아들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학에 들어갔고, 기쁘고 행복하게 대학생생활을 시작하고 즐기고 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 아들, 더 나은 삶이 있을거라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나지만 실망하여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작은 아들, 이들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는 집은 어디일까? 퍼주고, 베풀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것이 참된 안식처가 아닐까? '탕부 하나님' 책장을 덮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첫째 아들보다 못하고, 둘째 아들보다 못한 나를 끊임없이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는 속으신 아버지, 내 조카의 육신의 암보다 더 심한 암에 걸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버

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그 한마디 말이 내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못한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내 자식의 일에는 그리도 꼼짝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여유조차 없는 무심한 나를 '괜찮다 야야' 그저 덮으시는 아버지 이제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더 이상 행복을 찾지 않으리라 다짐해본다

해답 없는 문제지를 가지고 나 혼자 짚짚매지 않으리라 결심해본다. 완악해서 아버지의 잔치를 외면했던 큰아들처럼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사랑을 이용했던 작은아들처럼도 사는 삶이 아니라, '나라면 뭐든지 내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고귀한 사랑의 진가를 알아 내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담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마음 닿은 곳에 아낌없이 내 사랑을 허비하는 딸로 살아 가리라 소망해본다. 이제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기쁨의 잔치 자리인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이해해 보리라 꿈꿔본다. 나를 위해 낭비하신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마음을 적시어 고귀한 향기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들에 감사 한다.

베드로 진서 18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자

요즘 유행어로 절친 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친구 목사 와 최근에 카톡을 나눈 적이 있다. 집사님과 함께 로마로 가서 여행을 함께 하려고 했

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갈 수 없겠다 했더니 그가 한 말이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과연 우리가 얼굴을 몇 번이나 보겠다고. 자꾸만 그

말이 되새겨졌다. 지금까지 너무나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졌었다.

로마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있는 지인들과의 만남이 과연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만났다. 어릴 적에 함께 했던 친구였거나 목회자로 총회에서나 부흥회 또는 세미나에서 만나고 사귀었던 분들이었기

에 어쨌든 만나고 웃고 함께 식사하면서 근황을 건강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어지겠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 오늘의 만남도 귀함을 알아야 한다.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라 해도 결국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삶이 끝나면 모두와 작별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과의 모든 만남이나 대화도 추

억으로 변하고 그 추억마저도 기억 속에 사라지는 시간이 오는 것이다. 인생이란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는가. 과거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보면 나도 참 멍청하다.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벨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1)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2)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